

신년사

조선 봉건시대, 일제 식민지, 군사 통치 등에서 생긴 약화에 관한 청산을 한번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우리는 허울 좋은 문민정부의 이름 아래 지역 차별을 더욱 심화시켜 왔다.

개인에게 인격이 있다면 국가에는 국격이 있다. 한국의 재벌이 프랑스의 대기업 토크슨을 인수하려 하자 프랑스 국민들은 '졸부의 나라, 범죄적인 기업...' 등을 이유로 아우성이었다.

우리의 취약성·추악성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려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반성을 하지 않은 것에 있다.

투성이의 환경이 다음 세대의 원망이나 냉소적인 '자학'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당장에 내성(內省)의 체질질을 서둘러야 한다.

원래 약점과 강점은 서로 새끼줄처럼 얽혀 있다. 아무리 강점일지라도 시대 상황에 적용하지 못하면 이는 곧 약점이 될 것이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인의 원형은 비록 역기능을 하

원심력과 구심력이 되어 세계적인 규모로 격동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떠한가 조선왕조는 가문 중심의 세도 정치로 국민국가 요건을 외면함으로써 좌절했다.

(Noblesse Oblige), 투철한 사명감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신뢰감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정치지도자들이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은 오랜 식민지 통치로 시달렸던 후배대립의 남아공화국도 만델라 수상과 영도 아래 국력의 향상과 함께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있는 사실이다.

더욱 더 아슬기만 하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매우 훌륭한 잠재력이 있다. 고려 금속활자를 발명했으며 자본주의의 발전 계기인 복식 부기를 이탈리아 베니스의 상인들과는 독립적으로 개성상인들이 스스로 '송사개치부법(松都改置簿法)'이라는 이름으로 발명하였다.

특히 한글의 발명은 한국인의 지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인류사적인 발명품이다. 또한 한때 장교는 동북 아시아에서 해상권을 장악하여 일본·중국의 중간 지역으로서의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우위를 입증하기도 했다.

97년이 밝아오는 이 시점에서 감히 제안하려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율하는 좀더 대중적 차원에서 참회하는 삶을 영위해보자는 것이다.

참회하는 삶을 살자

고 있지만 미래의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승화할 수가 있다. 이것은 자학과는 거리가 먼, 아니 자학의 소지를 찾아내어 말끔히 씻기 위한 민족 차원의 정신 개혁 작업인 것이다.

다 알다시피 소련은 15개, 유고슬라비아는 5개로 분할되는 등, 복수의 민족을 갖는 북한국가 민족마다 독립을 시도하고 있고, 역지로 분할된 여러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 모두 통일되었다.

스스로의 변명과 문화 향상의 기반 위에 국제무대에서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살길은 오직 민족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일이다.

우리 모두는 지금과 같은 현실을 만들어온 사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단순한 참회가 아닌 구체적 결의와 실천 방안을 세우자, 국민국가의 지도자는 한낱 지역이나 가문을 위한 존재가 아니며, 7000만 민족의 운명을 정하는 중대한 임무를 지닌다.

치러온 대선 전략은 거의가 지역 차별과 관세공산당 만들기, 북한 위협의 악용에만 있었다. 선진국은 선거를 정당당당하게 치름으로써 선거 후 민족이 더욱 강하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은 건국 50년, 선거를 치를때 마다 국민간에 분열만 조장해 왔다.

주요 종단 중정 새해 법어

“상식 통하는 곳에 부처님 뜻 있어”

태고종 중정 보성스님

雪裡梅香春 美牛(美牛) (설리매향춘 미우포아면) 莫問(莫問) 平常(平常) 是佛 (막문조사의 평상심사불)



매화는 차가운 눈속에 향기를 품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다. 수행자는 모진 고행 끝에 정의로운 도(道)를 얻어 자비심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용서·화해 통한 국민 대화합 기대”

천태종 중정 도용스님

밝아오는 정축년(丁丑年) 새해에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가슴마다에 이해와 복덕이 구축하여 이 나라 오천년 민족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영광의 '97년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깨끗한 도덕의 실천으로 이땅에 살생과 모든 범죄가 일소되고 용서와 화해로써 계종간·지역간·노사간의 모든 분야에 대화합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집 경계 허물고 청정 불성 찾자”

진각종 총인 각해정사

정축년 새해를 맞으니, 온 세상이 눈부신 불국토로 다가옵니다. 이 새해의 감동을 가슴 벅치게 간직하는 중생들은 서둘러 탐진치 삼독을 털어내고 몸과 입과 뜻을 정화하니 이 곳이 바로 정토요, 이 몸이 곧 부처입니다.



새해는 우리를 둘러싼 아집과 이기주의의 경계를 허물고 등굴고 화해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부터 허물을 참회해야 합니다. 상대의 저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임을 알 때, 더불어 사는 지혜가 열리고, 사비도 복덕 지혜 구축한 불보살의 세상이 됩니다.

조계종 중정 월하스님

올 해는 고통속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으며 부유한 이들은 나눔의 즐거움이 곧 자기의 행복임을 깨닫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바에 모든 중생이 서로간의 신뢰와 따스한 정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런 복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

“동고동락하는 건강한 사회를”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익의 고른 분배로 굶주린 사람 구제하며 고통을 나누어 가짐으로 질곡 속의 사람들에게 자비의 실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일체 유정 무정의 모든 것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존의 숭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부상이 끊이어서 공명을 논할 소나 흥진의 만반사가 모두 다 그러하다 두어라 꿈 속의 꿈에기를 말하여 무엇하리

관음종 중정 대천스님

“만방에 기쁨과 환희 넘치길”



정축년 첫날, 동방에서 해 뜨네. 북서로운 기운 만방에 두루하여 모두가 환희롭다. 취해 찢던 짐, 소가 바퀴하니 가벼워서 천리를 간다. 만 사람이 함께 큰소리치니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구나.

법륜종 중정 일화스님

“백성 편안하고 국가부강 기원”



묵은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게되니 너나없이 모두 경건하게 행복하시라. 우리 불자들은 탐진치 삼독(三毒)을 끊어버리고 계정해 삼학(三學)을 돈독히 수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여 마지 않는다.

보문종 중정 해안스님

“자기 괴롭히지 않고 남 이롭게”



훌륭하게 말하는 법은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는 말로, 모든 시시비비로부터 벗어나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다른 이를 이롭게 하는 행동은 훌륭하게 사는 법입니다.

“큰서원 세워 뭇중생 제도하자”

총화종 중정 동광스님

마음이 본래 신령하고 맑고 청정하여 번뇌의 성품이 공한 줄 비추어보아 사탄 것과 바란 것을 부지런히 결박함을 더하며 자기의 지견을 고집말라. 마음에 어지러운 생각이 없으니 캄캄하게 막히지 말며 단견을 내지 말고 공과



“제자리 찾아 삶을 조화롭게”

총지종 중정 록경정사

정축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모두 미망(迷妄)의 그물을 벗어 던지고 자기를 바로 보고 이웃을 바로 봅시다. 우리 모두가 제자리를 찾을 때 우리의 삶이 다시금 조화롭게 엮어질 것입니다. 자기를 바로 보아 지난 날



현대만평 박구원 자기 반성의 해로... 97년

佛紀2541年 傳法の해

謹賀新年

2천만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大韓佛教曹溪宗 宗正老天下 總務院長 太空月珠